

김병종 화백 기증작품 특별전시

10월 17일까지 미공개작 중심 구성 '생명의 숲과 바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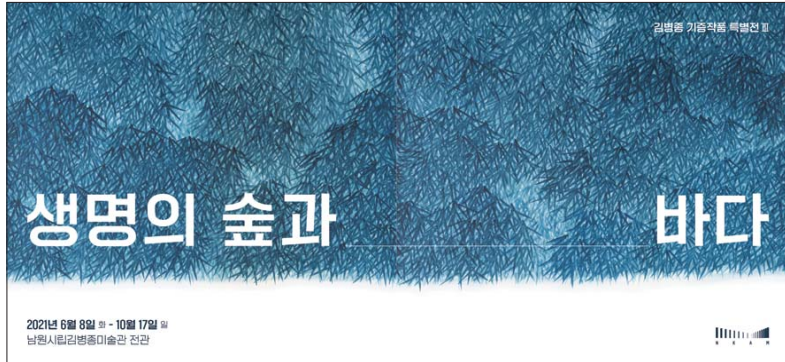
남원시는 8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김병종 화백의 세 번째 기증작품 특별전시로 '생명의 숲과 바다'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김병종 화백의 기증 작품 중 미공개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과 바다를 주제로 한 90여점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김병종 화백의 작품들은 고풍미(古拙美) 넘치는 친근한 작품들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오고 있으며, 영국박물관(런던)과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토론토)에 작품이 소장될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이번 전시는 그의 대표작 <생명의 노래> 시리즈로 시작, 무엇보다 이 시리즈에서 파생된 <송화분분>은 이어령 교수가 "생명의 최소 단위에 주목하는 김병종 화백의 그림이 놀랍다"고 말한 것처럼 생명의 존엄은 크기에 비례하지 않겠냐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으며, 생명의 발원인 숲과 바다를 소재로 한 다수의 작품들을 만나면서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감을 맛볼 수 있다.

특히 김병종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8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김병종 화백의 세 번째 기증작품 특별전시로 '생명의 숲과 바다'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개최한다.

관광공사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2021~2022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어 남원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김병종 선생님이 남원시에 기증한 400점의 작품 중 미공개작품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여름에 어울리는 숲과 바다가 주제이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한껏 청량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원광대 박물관, 예비 학예인력 지원 사업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1년 사립 및 사립대학 박물관 예비 학예인력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은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경력 인정기관을 대상으로 박물관 관련학과 졸업생 및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로 만 34세 이하 지원

인력을 선발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에 따라 배정된 예비 학예인력은 박물관에서 유물에 관한 연구와 수장고 관리, 전시 기획 등 박물관 실무 경험을 통해 전문 학예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물관장 이다은 교수는 "이번 지원 사업 선정으로 소장유물을 활용하여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갖춘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고, 우수한 학예인력을 양성하는 문화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전시·교육 진행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68년에 설립된 원광대 박물관은 1987년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의 전용 건물을 신축하고, 체계적인 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교육이 가능한 대규모 대학 박물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고고·발굴미술·생활민속·무속·서화·자수·금석문·고문서자료 등 12만3,437점에 이르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부안청자박물관, 코로나19 백신접종자 관람료 50% 감면 혜택

부안청자박물관은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관람료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종식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부안청자박물관은 선제적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백신접종의 속도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백신접종자는 기존 3000원에서

50% 할인된 15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 감면혜택 대상자는 백신 1회 접종 후 14일 경과자이며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거나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안청자박물관은 감면혜택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앙상블 클라비어와 함께하는 춤바람 콘서트'

순창군, 10일 향토회관에서 진행

순창군이 오는 10일 피아노의 선율에 흠뻑 젖을 수 있는 '앙상블 클라비어와 함께하는 춤바람 콘서트'를 연다. 공연은 저녁 7시 30분, 향토회관에서 진행하며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람객은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이 불가하다.

군은 전체 465석인 공연장 내 관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115석만 사용할 예정으로, 관람객 입장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앙상

블 클라비어'에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4명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무용수들은 이에 맞춰 왈츠, 탱고, 발레를 춤추는 음악과 댄스가 함께 어우러진 공연이다.

연주곡은 일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곡을 선정해 클래식에 대한 거부감을 없앴다. 이번 공연을 통해 클래식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연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063-650-1625)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소리문화의전당, 문화예술 교육 '풍성'

11월까지 도내 중장년층 여성·아동·유아 대상 프로그램 운영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전북 지역 중장년층 여성과 아동,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중장년층(만 50~65세) 여성을 대상으로 2021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 '발레로 쓰는 자서전'을 오는 7월 16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당 내 대연습실에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중장년층 여성이 직접 발레를 배우면서 그 체험과정을 한 줄 자서전으로 작성해봄으로써 현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한 20명의 교육생은 프로그램 수료 후 7월 17일 발표회를 연다.

전당은 또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소리아 놀자 4.0'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소리아 놀자 4.0'은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예술 놀이와 4차 산업 신기술인 VR로 풀어내 지역 아동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예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 프로그램은 도내 지역아동센터 12곳에 예술 강사를 파견해 센터당 총 20회로 진행되며 180여 명의 아동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전당의 메인 테마인 '우리 소리'를 주제로, 유아의 연령대별 특성 및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 중심 창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소리터? 놀이터'도 마련했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당의 다양한 장소를 테마별 팝업 놀이터로 꾸민 뒤 도내 유아교육 기관 25곳의 유아 500여 명이 전당을 방문해 강사로 참여한 예술가들과 함께 음악·연극·신체·상상 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뉴시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